

“친구야 전남 가자”...광화문광장 달군 전남관광

개도 이래 최초로 서울 한복판서 '전남 방문의 해 시즌 2 페스티벌' 정원박람회 등 잇단 국제행사 홍보... '관광 1번지 전남' 날개 펼쳐 한덕수 총리 참석 '관광거점 개발 등 관광산업 최대한 지원하겠다'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의 도약을 시작했다. 천혜의 자연, 22개 시·군 각각의 개성과 매력, 맛깔난 먹거리, 정감 있는 지역 분위기 등에 도로·철도·항만·공항, 숙박·편의 등 기반시설이 민선 7기 이후 하나둘 갖춰지면서 '잠재력'이 '경쟁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신감 속에 전남도가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에서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서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며, 전남도가 단독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행사를 주최한 것도 최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친구야 전남 가자'를 외치기도 했다.

21·22일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남 출신 구청장,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 항우, 서울시민 등 수만 명이 찾아준 비단 전남의 축제·특산물·자연 등을 즐겼다. 한 총리는 "전남도는 목포·보성·순천만습지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연 5000만명 이상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역"이라며 "관광은 지역의 핵심 먹거리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지역이 권한과 책임에 정책을 주도하고 중앙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항 활성화, 관광거점 개발 등 지역관광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관광객 1억 명 유치'와 '해외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통한 '글로벌 전남 관광 대도약 원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올해의 핵심 콘텐츠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전국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집중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도심 일원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리는 2023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살다'라는 주제로 2013년에 이어 10년 만에 개최된다. 2023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는 9-10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송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수목의 분향 진도와 목포 일원에서 열린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을 주제로 펼쳐지는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4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행사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이들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100여개의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 1억 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으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에서 대규모 여행사와의 여행상품 개발 및 판매, 편의점 업체와의 수산물 판매 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실익도 챙겼다. 해외에서 국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롯데제이티비(株), ㈜모두투어인터내셔널, ㈜하나투어아이티씨 등 국내(인바운드) 대표 여행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해외관광객 유치와 전남 관광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았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서는 올해 편의점 김밥용 김 약 120억원어치를 구매하고 편의점 간편식 재료 사용과 신메뉴 개발에 전남 수산물을 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과 연동해 공동주문·판매 방식으로 운영하는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전남에서 생산한 제철 수산물을 판매하고 홍보(전남 어가 돕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시의적절하게 도착하는 전남을 서울시민, 항우 등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전남도민은 이제 당당하고 친절하게 외지 관광객들을 대하고 전남도와 함께 '다시 찾는 전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에서 세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남 방문의 해 홍보 행사장을 방문해 김영록 전남지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관광해설사, 지역 캐릭터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도 독감처럼 1년에 한번씩 접종... 10~11월 실시

면역저하자는 2·4분기 2회
등급 하향돼도 올해는 '무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독감 접종처럼 연 1회 정기 접종으로 바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유지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

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거쳐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접종 시기는 오는 10~11월이전 전 국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접종 이전에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올해는 무료 접종 방침이 유지된다.

이중 고위험군에는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고위험군에는 65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항암치료자·면역억제제 복용환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병·전식

등 기저질환자가 포함된다.

특히 면역저하자의 경우 항체 지속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접종하도록 했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고령층을 '60세 이상'으로 정의했으나 60~64세의 누적 치명률이 65~69세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이를 '65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백신 연례 접종은 유행 억제에 아닌 중증·사망 예방이 목적으로, 신규 변이 출현 등으로 확진자나 중증·사망자가 급증할 경우에는 유행 억제를 위해 접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40년 중외공원 놀이시설 역사속으로	▶2면
지역주택조합 흥드는 조합 사냥꾼 주의보	▶6면
신 팔도명물-제주 햅맛파	▶22면

'인공지능(AI) 선도도시 광주' 혁신의 바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선진화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 광주 병의원에 진단보조솔루션을 도입해 의료진의 진료 정확도를 높입니다.

둘, 소방본부에서 운영중인 구급차와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인공지능(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AI앰블런스)을 도입합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응급환자 후송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센터에서 개인건강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기초체력·검진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 시민들은 공공의료업으로 직접 건강데이터를 관리·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광주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의료기관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